

독서
활동지



“테니스에서 0점은 러브라는 게 마음에 들어.
정말 멋지지 않니?”

러브 피프틴

전앤 장편소설

별*
년

책 소개

제21회 세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 『우리는 마이너스 2야』 전앤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마이너스의 관계를 통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존재들임을 점점 잊고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제21회 세계절문학상 심사평)이라는 평을 받으며 10대 청소년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은 첫 번째 작품에 이어, 『러브 피프틴』에서도 ‘혼자’가 아닌 ‘우리’로 존재할 때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통해 진정한 성장담을 풀어 나간다.

러브 피프틴(0 대 15)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니스에서 0점은 러브이다. 승패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향한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스포츠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랜드 슬램을 꿈꾸지만, 여전히 위태롭고 실수투성이인 여섯 명의 미래 유망주가 테니스 코트 위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동료이자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간다.

그리고 매번 반대편 코트로 무사히 넘겨야 하는 공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각자의 고민과 부딪히면서 진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러브’에서 시작되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줄거리

테니스 선수이자 ‘즐거운 오후’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스타인 ‘오후’는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에 부담을 느껴 슬럼프에 빠진다. 물론 고민에 빠진 것은 오후 혼자만이 아니다. 아직 우승만을 목표로 하다가 표정까지 잃어버린 ‘시진’과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오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미르’, 그리고 각자의 사정과 한계로 고민하는 ‘가혜’, ‘석기’, ‘다미’. 하지만 테니스에서 0점은 제로가 아닌 러브이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저마다의 러브에서 꿈을 향해 다시 시작한다.

활동 목표

1. 등장인물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고 우정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모색할 수 있다.
3. 진정한 성장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고 자신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다.

*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러브 피프틴』은 테니스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라켓을 이용하는 대중적 스포츠인 ‘테니스’에 대해 살펴봅시다.

① 작품에서 테니스 경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짝 감상해 봅시다.

다미가 서브에서 실점을 내면서 40 대 40 듀스가 되었다. 두 번 연속 포인트를 따내야 승리다. 다미의 백핸드가 코트에 그대로 꽂히면서 먼저 한 포인트를 가져갔다. 그러나 오후가 바로 백핸드 발리로 갇아주면서 다시 동점이 되었다. 다미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 날카로운 포핸드로 공을 받아 쳤다. 타당! 오후가 드롭 샷으로 맞대응했다. 다미가 한 점을 따고 이어 오후가 다시 한 점을 따내면서 또다시 듀스, 반복되는 맞대결에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79쪽)

② 테니스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경기 중계를 본 적이 있나요?

③ 테니스 경기 규칙과 스코어법, 용어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 방법과 규칙

테니스 경기에는 2명이 겨루는 단식, 2인 1조의 4명이 겨루는 복식, 남녀 1조의 4명이 겨루는 혼합 복식 등이 있다. 시합의 승패는 게임의 경우 포인트가, 세트의 경우 게임 득점이 많은 쪽이 승자가 된다. 국제 시합이나 정식의 시합에서는 남자는 5세트, 여자와 주니어는 3세트로 한다.

테니스 경기는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의 4단계로 구성된다. 시합 도중 공격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1점을 얻거나 잃게 되는데, 이때의 점수를 포인트라 한다. 4포인트를 먼저 얻으면 1게임을 이기게 되며, 만약 3 대 3 포인트가 되면 듀스라 하여 2점을 연속해서 먼저 얻은 선수가 그 게임을 이기게 된다. 6게임을 먼저 얻으면 1세트를 이기게 된다.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 단식의 경우는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겨야 하고(3세트 중 2세트를

선취하는 경우도 있다),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은 3세트 중 2세트를 이겨야 승자가 된다. 이와 같이 완전한 승자가 되기 위하여 겨루는 시합 횟수를 매치라 한다.

🎾 스코어법

테니스의 점수를 부르는 방법은 다른 경기와 달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점은 포인트의 점수를 부르는 방식인데, 그 요령은 0점을 러브, 1점을 피프틴, 2점을 서티, 3점을 포티라고 한다. 이 방식은 리얼 테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3번째 포인트를 15의 배수인 45가 아닌 40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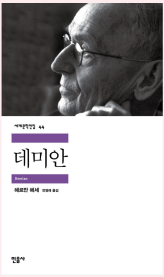

0점을 뜻하는 러브는 달걀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l'oeuf'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서버의 득점을 먼저 부르므로 30 대 15의 점수는 서버가 2포인트, 상대가 1포인트를 뜻한다. 만일 양 선수가 포티(40)가 되면 스코어는 듀스라 하고 한 선수가 먼저 어드밴티지를 취한 후 2포인트 차이로 게임을 얻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한다.

🎾 용어

- 스트로크Stroke : 테니스에서 나올 수 있는 타구 기술을 통틀어서 이르는 용어
- 발리Volley : 상대의 스트로크를 노바운드로 처리하는 방법의 스트로크를 통칭하는 용어
- 오버헤드(스매싱)Over Head (Smash) : 타점이 머리 위에 있는 경우, 높은 공을 머리 위에서부터 강하게 내리치는 강력한 타법
- 랠리Rally : 한 포인트를 내기 위해 양쪽의 선수들이 주고받은 스트로크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
- 드롭샷Drop shot : 네트 가까이에 붙이는 샷
- 슬라이스Slice : 타구 시, 공의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회전을 주는 타구
- 포핸드Forehand : 베이스라인에서 네트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주 사용 손(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의 방향으로 오는 공을 타구하는 것
- 백핸드Backhand : 베이스라인에서 네트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주 사용 손(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의 반대 방향으로 오는 공을 타구하는 것
- 로브Lob : 테니스 스트로크 중, 공을 높게 띄워 상대 베이스라인 근처로 떨어뜨리는 기술
- 그랜드 슬램Grand Slam Tournaments : 테니스 대회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거나 규모가 가장 큰 4개의 대회(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윌블던, US 오픈)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고

2. 『러브 피프틴』은 고등학생 청춘들의 성장담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성장물(成長物 : 문학, 연극, 영화, 비디오 게임 등지에서 주인공의 성장, 성숙의 과정에 주목하는 장르)에 대해 알아보시다.

 <p>책 『데미안』</p>	<p>주인공 싱클레어가 열 살 소년에서 청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 고독하고 불안한 청춘의 내적 갈등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p> <p>“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p> <p style="text-align: right;">* 헤르만 헤세, 『데미안』(전영애 옮김, 민음사, 2000)</p>
 <p>영화 <빌리 엘리어트></p>	<p>영국 북부 가난한 탄광촌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우연히 발레의 매력에 빠진 빌리가 꿈을 이루어 내는 성장 이야기.</p> <p>“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긴장되기도 하지만, 일단 추기 시작하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죠.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어서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나는 것 같아요.”</p> <p style="text-align: right;">* 스티븐 달드리, <빌리 엘리어트>(2001)</p>

① 『데미안』과 <빌리 엘리어트>는 대표적인 성장물입니다. 이 두 작품을 성장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② 내가 읽거나 보았던 성장물이 있나요? 그 작품은 어떤 점에서 성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세요.

* 인물들이 성장, 성숙하게 되었음이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러브 피프틴』을 읽어 보세요.



1세트 테니스 코트의 여섯 친구들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각 인물의 가족, 성격, 배경 등 특징을 소개하고, 그 인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대사 혹은 문장을 책에서 찾아 써 보세요.

오후	
시진	
미르	
다미	
가혜	예) 용기 내어 볼까? 자신을 따라 웃는 석기가 좋았다.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일단 묻는 거다.
석기	

2.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살펴봅시다.

- ① 여섯 친구들은 모두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친구들 각각의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를 알려주세요.

오후	
시진	
미르	
다미	

가혜	
석기	예) 내가 테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다른 걸 찾아야 할까?

② 어떤 친구의 문제에 제일 공감이 됐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밑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혜는 오후의 고민이 자신의 것인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테니스 게임은 정신 훈련이 가장 중요했다. 오후를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84쪽)

④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오후는 시선을 멀리해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웃어.' 오후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최대한 입을 옆으로 벌리고 눈은 살짝 감은 듯 웃으라고. 나2는 나1에게 명령했고, 결국 나1은 웃음지었다. 오후는 언제부턴가 '나'들로 살아갔다. 나1은 '숨어 있는 나'이고, 나2는 '보여지는 나'였다. (10쪽)
- ㉡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나 너 알아." 그들은 오후가 하는 말을 천진난만하게 내뱉었다. 그 말은 오후를 꿈쩍 못 하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나1은 유명해지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다며 솔직해지자고 했다. 그러나 나2는 그냥 모른 척하라고 했다. 오히려 더더욱 행복한 척을 해서 상대가 더 질투하도록 만들라고 부추겼다. 결국 오후는 사랑받아서 기쁘다는 듯 웃어 보였다. (33~34쪽)
- ㉢ 오후는 나1도 나2도 아닌 다른 '나'를 만나고 싶었다. 자신도 몰랐던 그런 '나'가 있어서 이 순간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92쪽)
- ㉣ 그러니까 나1과 나2가 존재하는 것. 어쩌면 그게 오후 자신이 아닐까? 분리된 나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끌고 나아가는 것. '나'들이 바로 나였다. 열세 살, 주니어부에서 우승했을 때의 나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열일곱의 나는 두려움에 움츠려 있었다.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도 나이듯 이제는 새로운 나3이 필요하겠지. 오후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거야. (199~200쪽)
- ㉤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알아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는 없다. 나답다는 틀에 나를 가둬 놓고 그것을 벗어나면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손힘찬,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스튜디오오드리, 2021)

㉥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 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 헤르만 헤세, 『데미안』

1. ㉠~㉣을 참고로 오후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2. 오후처럼 나 자신에게 여러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나1', '나2'……로 '나'의 여러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3. ㉤~㉨의 밑줄 내용에 동의하나요? 이에 대한 내 생각을 근거를 들어 밝혀 보세요.

4. ㉩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솔직한 '나'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나'로, '나답게' 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자와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글을 참고로 여섯 친구들의 우정을 들여다봅시다.

미르 → 오후	이제 눈앞에 오후가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급식도 하교도 훈련도 함께한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토록 괴로울 수 있을까? 미르는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과 한 번의 눈인사면 충분하다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 중이다. (36쪽)
오후 → 미르	누구든 붙잡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때, 우연히 그 자리에 미르가 있었다. 오후는 미르가 눈앞에 나타나서야 깨달았다. 미르와의 관계에서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을. 미르가 친절하게 굴수록 자신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다. (43쪽)
오후 → 시진	오후도 그만 발끈했다. 주먹을 꼭 쥐고 계속 말했다. <u>“너를 돕고 싶는데 내가 아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u> (174쪽)
시진 → 오후	“오후야.” 이름을 부르는 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u>“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u> (174쪽)
시진 → 미르	시진은 두 포인트를 따내며 가까스로 미르를 이겼다. 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만만찮은 상대를 만났고 앞으로 계속 경쟁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47쪽)
미르 → 시진	시진을 소중한 친구로 생각했다. 서로를 자극하면서 실력을 더 높여 주고 결국 자기 능력의 한계치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진정한 경쟁자라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미르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55쪽)
다미 → 오후	그렇게 얻은 1등 자리인데 왜 오후 앞에서는 빛을 내지 못하는 걸까? 관중석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오후가 이기기를 바라며 열렬히 응원하는 것만 같았다. (77쪽)

① 여섯 아이들은 함께 테니스를 치는 좋은 친구들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등장인물 중 누구의 마음에 제일 공감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프레너미(frenemy)는 ‘친구(friend)’와 ‘적(enemy)’이라는 두 상반적인 단어의 합성어로,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 또는 친구와 적의 특성을 함께 갖는 사람을 뜻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프레너미’란 용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세요.

프레너미는 가능하다 :

프레너미는 불가능하다 :

③ 오후와 시진이 밑줄처럼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오후와 시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사람의 태도를 각각 평가해 보세요.

“너를 돕고 싶는데 내가 아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 VS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

⑤ 친구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도움을 줄 때 :

도움을 받을 때 :

2. 글을 보고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험이 내게 있었나? 오후는 이상하게 가슴이 설렸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면 되는 걸까? 친구지만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온전히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에 외로운 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구를 갖는다는 건 이런 마음이었어.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슬픈 일을 함께 이겨 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돕는 거였다. (117쪽)

① 밑줄을 참고하여 내가 생각하는 ‘친구를 갖는 마음’을 완성해 봅시다.

“친구를 갖는다는 건 이런 마음이었어.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 유익(서로 이익을 추구), 쾌락(서로 즐거움을 추구), 선(상대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추구)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우정을 맺고 싶은가요? 내가 추구하는 우정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3문장 이상)

3. 다음 글을 읽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나 이용해서 돈 버니까 좋아?” (91쪽)

“부탁이야. 제발 나 말고 오수인의 삶을 살아.” (133쪽)

㉡ 오 여사도 다른 삶을 꿈꾸는 적이 있었을까? (142쪽)

엄마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168쪽)

㉢ 그러자 오 여사도 힘겹게 이해하기보다 가만히 끌어안고 싶어졌다. (184쪽)

하지만 자신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오여사의 응원과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195쪽)

① ㉠~㉢을 참고로 엄마에 대한 오후의 마음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② 엄마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오후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엄마가 오후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④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나는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4. 글을 참고로 좋은 어른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오 여사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이었다. 자신의 노력이 억울했고 삶이 통제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토록 도와주는데 왜 해내지 못하는 거지? 딸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슬럼프 같은 힘든 순간은 많은 선수가 겪는 일이다. 이 위기만 넘기면 분명 나중에는 자신에게 고마워할 텐데. 철없는 딸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134쪽)

㉡ 아버지에게 세상은 커다란 괴물처럼 보일까? 언제든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 (101쪽)

㉢ “그거 좋네. 근데 무서운 꿈은 왜 애들만 꾸지?”

“어른 되면 꿈보다 무서운 현실이 더 많으니까.” (180쪽)

㉣ “한때 워블던에서 멋진 실력을 보여 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일까?”

“자신이 쏟았던 노력과 열정을 다 잊어버려서 저렇게 망가진 거야.”

“여태까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나?” (……)

무너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게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다가왔다. (125쪽)

① 책에는 세 명의 어른(오후의 엄마 오 여사, 시진의 아빠, 장 코치)이 등장합니다. 세 인물 중에서 비판할 인물과 옹호할 인물을 골라 근거를 들어 비판과 옹호를 해 보세요.

비판하고 싶은 인물 :

옹호하고 싶은 인물 :

② ㉡~㉣에서 어른도 세상이 무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③ 내가 생각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서술해 보세요. (주위에서 만난 어른, 책과 영화 등에서 본 어른 등 내가 생각한 성숙한 어른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서술해 보세요.)



4세트 성장한다는 것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과 성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1세트 2번에서 정리했던 각 인물들의 문제(내적 갈등)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오후	
시진	
미르	
다미	
가혜	
석기	예) 아무리 노력해도 테니스 선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대학 가서 테니스를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수가 아니라 국제 심판이 될 꿈을 찾았다.

2.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처음에는 겁이 좀 났는데 지금은 잘하고 싶어. 나중에 꼭 갚아야지.”

시진은 도움을 받고 반드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189쪽)

㉡ “가혜야, 나는 오후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 (191쪽)

㉢ 훈련 시간도 부족했고 전략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오후는 편안했다. 테니스를 하다 보면 되는 날이 있고 안되는 날이 있다. 이제는 꾸준히 나아가는 게 최선이라 믿었다. 오후는 현재에 집중했다. 경기장에 있는 자신을 느꼈다. (202쪽)

㉣ 다미는 어깨를 폈다. 잔뜩 움츠러든 마음이 살아나고 있었다. 뺨에 닿는 밤공기가 부드러웠다. 버스가 도착하자 오후와 가혜가 올라탔다. 다미는 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118쪽)

① ㉠~㉢을 참고로 인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② 인물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세요. (예, 타인과의 대화. 시진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아버지는 시진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셨다.)

③ 등장인물들은 방황과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전의 자신보다 성숙하게 됩니다. 오후를 대표로 변화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달라진 오후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별명을 만들어 주세요.

“그 풀미역치가 꼭 나 같아. 테니스 선수인데 테니스를 못하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테니스 스타니까 나도 위장술을 부리는 거지.” (83쪽)



오후야, ()가 꼭 너 같아. (이유)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인데. 흔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두고 운이 좋다면 신이 도왔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신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에 개입하는 거래.”
“무슨 의미야?”

4. 테니스 경기에서 포인트의 점수를 부를 때 0점을 러브, 1점을 피프틴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보여 주는 러브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며 책의 제목이 ‘러브 피프틴’인 이유를 짐작해 보세요.

러브 피프틴. 심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오후의 점수는 러브. 그러나 경기는 이제 시작이다. (203쪽)

1. 랠리를 이어 가고 있는 나의 '최애'를 응원해 봅시다.

“최애란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지. 예를 들어 나의 최애는 테니스 칠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지.” (193쪽)

미르에게는 오후가 최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늘 오후를 응원해 줍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어떤 인물을 가장 응원하고 싶었나요? 그 인물을 『러브 피프틴』에서 나의 '최애'로 삼아 응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보세요.

Dear, 나의 최애 ()

〈참고〉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인 『데미안』 중에 이런 문장이 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헤르만 헤세는 이 말을 통해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인식의 세계를 깨어 부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 주고 있다. 깨어 부수는 고통의 과정은 근원적인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생산적이고 철학적인 파괴이자 고통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고통을 통해서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아프락사스와 대면할 수 있다고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한다.

* 한희원 작가, 전남일보 칼럼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2016. 11. 23)